

의료기관 근로자의 최근 산재발생현황



김은아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병원 감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의료과정에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낮았다. 의료기관은 청결하고 안전한 곳으로 상상되기 쉽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업무들도 수행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 산업보건영역의 국가 agenda중 중요한 영역으로 선정되어 있다¹. 미국의 국립직업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주사침상해, 근골격 질환 등을 보건의료기관 근로자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업성질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².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ffice, ILO)에서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대표적인 직업성질환을 감염질환,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노출에 의한 질환, 교대작업과 야간노동 등을 제시한 바 있다³. 세계보건기구는 1981년 직업성 위험요인에 대한 회의를 열고, 찰과상이나 절상, 허리 부상, 보호구의 부족, 기계전기시스템의 위험, 환자에 의한 폭력 등이 보건의료기관의 5대 위험요인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³.

한국의 경우 2007년에 보건의료인은 101만 837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100만 명을 초과하였고, 매년 19만 여명의 의료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여⁴, 보건의료산업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요양승인 받은 의료기관근로자들의 재해경향을 개괄하여, 한국 의료기관 근로자의 직업성 부상과 질병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이 업종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산재경향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취합하는 산업재해요양승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2000~2009년간의 승인자들 중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의료기관근로자의 산재요양건수는 2000년에 493명에서 2009년에 1,02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1). 이러한 현상은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증가와, 근로자들 사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요양을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보면 질병은 전체 산재요양의 약 15~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통상 5~12%가 직업병을 차지하는 전체산재사업장의 산재경향과 비교해 볼 때 의료기관 산재는 질병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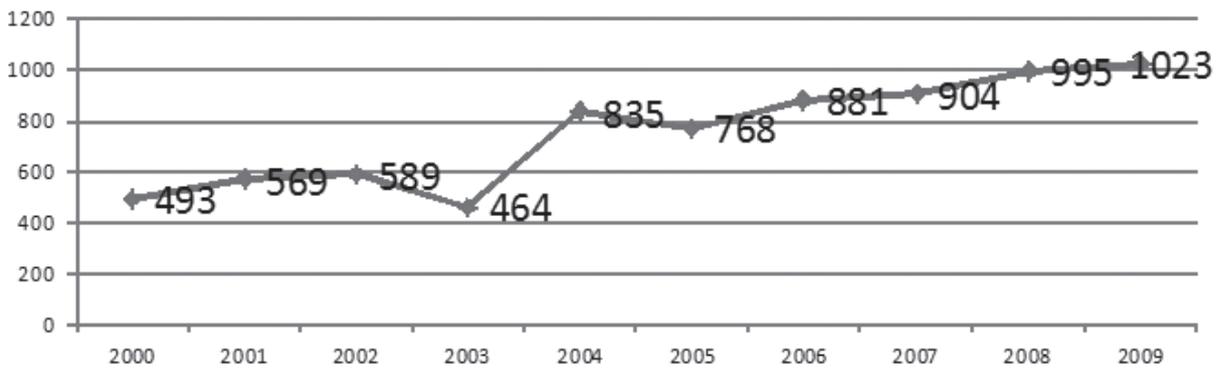
사고성 재해의 발생형태는 넘어짐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돌과 무리한 동작이었다. 의료기관의 미끄러운 복도나 실내의 물기, 계단 등의 환경, 시급한 진료행위 등의 이유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고 받히

는 재해가 흔하였다(표 1). 전체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와 비교해 볼 때, 의료기관의 재해는 특히 넘어짐 재해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폭력행위는 전체업종에서는 모든 재해의 0.2%였는데, 의료업종에는 1.9%로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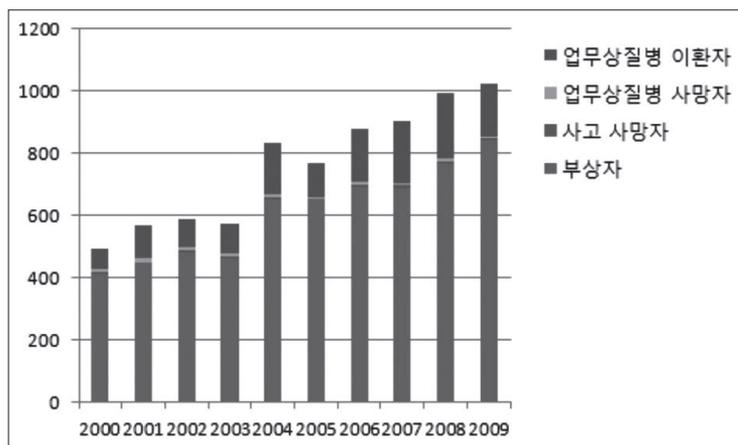
의료기관 근로자의 직업성질환은 근골격계질환이 46%를 차지하여 가장 흔한 병이었고, 다음으로 감염성질환이 31%로 많았으며, 순환기질환도 17%로 많은 편이었다(표 2). 감염성질환은 결핵(80.3%), 간염(13.6%)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수두,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있었다. 주사침손상에 의한 감염질환은 5건이 보상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추염좌가 31.3%였다.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성질환 외의 직업성질환으로는 갑상선암, 백혈병, 소음성난청 등 전형적인 직업성질환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이나 피부질환, 신경질환 등이 보상받은 사례가 있었다.

의료기관이라는 환경은 상대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의료인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질환,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노출에 의한 천식이나 피부염, 암질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작업방법이나 작업자세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 크다. 뿐만 아니라 교대작업 및 야간작업과 수직적인 조직구조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인이 작업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심리적 유해요인의 관리가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이제 한국사회도 의료인 1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들어서, 보다 건강한 의료인을 통해 좋은 진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의료인의 직업보건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서 이들의 조기 증상을 확인하고 위험인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의료인 자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내의 위험을 파악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의료기관 근로자의 산재요양 건수(2000-2009)



[그림 2] 의료기관 근로자 사고와 질병 현황(2000-2009)

[표 1] 의료기관과 전체업종의 사고(부상과 사망)의 발생형태 비교

발생 형태	의료기관	전체업종
감김, 끼임	6.2	22.1
넘어짐(전도)	41.8	20.2
추락	5.2	14.7
충돌	10.2	11.6
낙하, 비래	3.3	9.3
절단, 베임	5.5	5.5
무리한 동작	9.8	5.0
교통사고	3.7	4.1
이상온도	5.9	1.9
붕괴, 도괴	0.3	1.1
화재	0.7	0.8

[표 2] 의료기관 근로자의 질병 분포(2000-2009)

	건	%
감염성질환	424	31.0
호흡기	22	1.6
암	2	0.2
정신질환	9	0.7
신경계통	21	1.5
귀, 눈	7	0.5
순환기	232	17.0
소화기	6	0.4
피부	13	1.0
근골격계	630	46.1
비뇨기	2	0.2

[표 3] 의료기관 근로자 산재요양 질병(근골격계와 감염질환 외)

질병종류	건	상세병명
암질환	2	방사선사의 갑상선암(1), 간호사의만성골수성백혈병(1)
소음성 난청	3	
정신질환	9	급성스트레스 장애(3), 적응장애(3, 자살 1건 포함), 불안(2), 신체화장애(1), 자살(1)
피부질환	13	접촉피부염(4), 봉와직염(3), 방사선피부염(2), 아토피(2), 화상(1), 수지농양(1)
신장질환	2	신우신염(1), 급성신부전(1)
소화기질환	4	간경화(1), 십이지장궤양(1), 위십이지장염(2)
눈질환	4	중심망막동맥폐쇄(1), 중심성장액성망막맥락막증(2), 각막미란(1)
신경질환	3	간질발작(1), 길리안바레(1), 벨마비(1)

참고문헌

1. NIOSH. A NORA Report: State of the Sector 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 Identification of Research Opportunities for the Next Decade of NORA: NIOSH; 2009.
2. Wugofski L. Occupational accident in health care workers- Epidemiology and prevention. In: M H, F H, U S, G W, eds. Occupational Health for Health Care Workers. Singapor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1995.
3. Yassi A, Warsaw LJ.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Stellman JM, ed. ILO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th ed. Geneva, Swis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7:97.2-64.

4. Book of Health Statistics 2007.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9. (Accessed 10-5, 2010, at <http://www.kma.org/contents/board/mboard.asp?exec=view&strBoardID=report&intSeq=3449>)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원인(연도별). 2001-2009. Accessed 10-9,2012 at <http://www.kosha.or.kr/board>